선학원, 부지매각 해명 없이 분원 유치원도 요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창건주 · 분원장 몰래 분원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일체의 해명 없이 연속적인 감사로 해당분원을 압박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창건주 개인 지명으로 기증돼 9년간 운영해 온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재단 등록을 무리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원기증자의 반대로 재단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사고사찰 지정' 등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해 왔다는 주장이다.

本紙에 제보한 총림선원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선학원은 총림선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매각한 것과 관련해 창건주 · 분원장 스님이 해명을 요청하자, 되레 창건주가 2013년 기증받아 운영해 온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재단 등록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원기증자가 "유치원 · 어린이집을 선학원에는 맡길 수 없다"며 매매계약 형태로 다시 회수해, 선학원이 분원의 포교활동까지 저해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적지 않다.

本紙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총림선원 감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20년 7월 3일, 창건주 · 분원장 스님이 당시 이사장이었던 법진 스님에게 토지 일방매각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직후다. 선학원은 총림선원에 '종무행정 지도감사'를 예고하고 15건에 달하는 감사 준비서류를 요구했다. 상당부분이 그동안 재단 방침에 따라 이미 제출했던 자료였으며, 이 중에는 A스님이 운영해 온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그해 8월 선학원은 유치원 · 어린이집의 재단 등록을 권고하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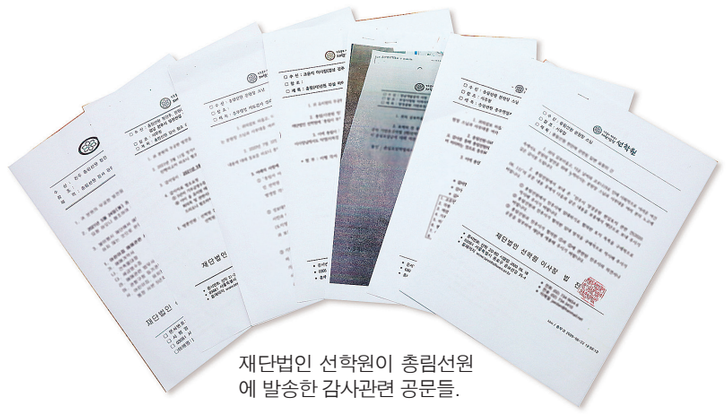
총림선원 관계자들, 정황 제보

'사고사찰' 거론 감사 · 자료청구

"'유치원'을 빌미로 도넘은 감사"

이 포함된 감사결과 통보공문을 총림선원에 발송했다.

그러나 총림선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 어린이집은 한 재가불자가 '지역 어린이 포교'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창건주 A스님 개인을 지정해 기증한 것으로, 재산상 선학원과 아무런 접점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었다. 실제 유치원은 총림선원 재정과 별개로 운영됐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기증자와 그 가족이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후원해 왔던 것으로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에 발송한 감사관련 공문들.

확인됐다.

총림선원이 9월경 선학원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A스님은 법진 스님에게 "유치원 시설인 토지와 건물은 기증받은 것으로 총림선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기증자에게 물어볼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고, 법진 스님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선학원은 원기증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A스님이 선학원에 유치원 가등기를 약속했으니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첨부된 이행각서에는 기일이 12월 31일까지로 기재됐지만, A스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행각서였고 구두로도 약속하거나 문서에 날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선학원의 내용증명을 받은 원기증자는 "총림선원 토지를 몰래 매각한 선학원에 유치원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앞서 매매계약의 형태로 사실상 유치원을 회수했고, 선학원의 유치원 취득의사 여부에 따라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원기증자 B이사장은 "A스님의 원력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 어린이집인데, 성범죄자가 이사장이고 사찰 토지나 몰래 매각하는 재단에는 절대로 넘길 수 없었다"며 "이 재산이 형성되고 총림선원 스님의 원력으로 유치원이 지역 1위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선학원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심지어 재단법인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개인의 재산까지 이래라저래라 강요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총림선원을 향한 감사 압박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선학원은 유치원 소유권 이전이 매매 형태인 것을 문제 삼았고, A스님은 확보 가능한 선에서 선학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재단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는 물론 해당 계약의 경위까지 소상하게 밝힌 것

"미제출시 사고사찰 지정"압박

유치원 재단 등록 지속요구에

원기증자 반발해 명의 회수도

으로 확인됐으며,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미제출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해 이사회에 회신했다.

그럼에도 선학원 감사는 갈수록 강도를 더했다. 2021년 8월에는 "자료 미제출시 이사회에 상정해 사고사찰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분원장 · 창건주의 10년간 통장사본은 물론, 총림선원측이 소상히 알지 못하는 유치원 건립 불사내역까지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림선원 관계자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왜 유치원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총림선원 입장에서는 선학원 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와 무관하게 토지를 망실했고, 잘 운영해 온 지역 최고명성의 유치원까지 잃는 등 날벼락을 맞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선학원이 총림선원에 대해 '사고사찰 지정' '법적절차' 등을 거론하며 압박감사에 나선 근거는 2019년 개정된 분원관리규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 등록 이후 취득한 재산 전체에 대한 무상증여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빚었다. 재단법인의 권한 범주를 벗어나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까지 옭아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표나 안내 절차 없이, 사실상 분원 모르게 규정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선학원이 의도적으로 재산 뺏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반발도 거셌다.

한편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에 따르면 선학원 이사회는 올 2월 총림선원이 감사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사찰 지정의 건을 논의했다. 本紙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총무이사 지광 스님 등에게 메일과 문자, SNS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방생' 평화순례로 뭇생명 품어 안는다

상월결사, 4월 27일 월정사서

전세계 평화를 발원하며 교구본사 순례를 이어가고 있는 상월결사가 기존 평화순례에 '방생'의 의미를 더해 뭇생명을 품어 안는다. 자타불이(自他不二) 가르침으로 내 마음의 자유를 찾고 이를 통해 모든 생명붙이들을 위한 걸음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4월 20일 간담회를 열고 "기존 상월결사 평화순례에 '방생' 의미를 더해 보다 확대된 의미의 '방생평화순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회주 자승 스님이 제시한 '수행의 마음방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생이며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는 바탕이자 첫 걸음"이라는 가르침이 담겼다.

첫 방생 평화순례는 4월 27일 오전 9시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시작된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취합 중인 참석인원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전 9시 월정사 명상마을에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입재식을 열고 걷기 순례를 시작한다. 입재식에서는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이 신도와 불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에서 방생축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적광전 앞 특설무대서 한암대종사 탄신다례재가 봉행된다. 순례대중은 월정사 참배 후 다시 동피골 주차장까지 약 5.5km를 걸어 점심공양 후 다시 상원사까지 순례한다. 총 순례코스는 12km 가량이며, 우크라이나 희생자 추모를 위한 입정 시간과 상월결사를 통해 모연된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기금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걷기 수행으로 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이를 통해 평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방생과 평화는 둘이 아니라고 본다"며 "코로나 방역이 일부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순례대중들과 함께 우리 시대 새로운 방생의 의미를 찾아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생평화순례' 취지를 밝히는 일화 · 호산 · 원명 스님.

지객 원명 스님은 "특히 기존 방생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면서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방생문화를 현대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월결사 방생 평화순례는 월정사에 이어 5월 25일 백양사, 6월 법주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선학원, 분원 몰래 일방매각 묵과 안 돼"

선학원미래포럼, 4월 20일 기자회견

선학원 소속 분원의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本紙가 보도한 '총림선원 부지 일방매각 사건'과 관련해, 선학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대표 자민)은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진과 이사회는 총림선원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스님들은 특히 "선학원에 등록된 분원은 재단에서 본래 소유하고 있던 사찰을 분원장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해당 사찰 창건주와 분원장이 신도들과 더불어 건립하여 재단에 등록한 것"임을 재차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매각의 최우선 결정권은 '해당 분원'에 있으며 결코 이사회가 분원 몰래 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래포럼은 "사실이 아니라는 선학원의 반론을 기대했지만 일말의 기대도 무산됐다"며 "이 상황은 한 개별 분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분원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 선학원미래포럼을 비롯한 전 분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우선 선학원에 진상조사단 구성을 통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사회에 예속되지 않고, 창건주 · 분원장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물로 구성돼,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스님들은 "사찰을 창건한 스님이 선학원에 등록한 것은 명의를 신탁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분원의 재산운영은 우선적으로 당해 분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님들은 "불자들로부터 존경받던 큰 스님들께서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던 시기에는 그렇게 해왔고, 실례로 분원에



선학원 미래포럼 기자회견 모습.

서 불사를 할 때는 위임장을 내려보내는 편의까지 제공하면서 분원을 배려했다"며 "분원들이 선학원의 창립취지와 정신에 공감하여 명의를 신탁한 것이기에, 역대 이사장스님들도 분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포럼 산하에 법률자문단을 운영, "이사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 분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 도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2022년도 상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에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7월)
   → 지원금 입금(7월 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6(2022)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 혜**